

## 題吾等生涯與韓國現代史

— 우리들의 일생과 우리나라 현대사에 부쳐 —

1. 丁丑於間吾出生      우리 모두 정축 무렵 세상 태어나  
流水歲歷已望九      물흐르듯 인생살이 아흔 가깝네  
現世同時爲日民      태어나자 왜놈나라 백성이되어  
祖國亡失至三九      나라가 망한 지는 스물 일곱해
2. 初校入學七八歲      7·8세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強制施行創氏名      강제로 창씨개명 시행한 터라  
倭色姓字代吾身      왜색질은 이름으로 우리 몸 삼고  
他語常用變性情      남의 말에 성정도 바뀌어 갔네
3. 日常倭語雖不通      일상으로 왜말쓰기 힘이 들어도  
皇國臣誓必暗誦      황국신민 서사는 외워야 했지  
僥倖乙酉島國亡      요행히 을유년에 섬나라 망해  
僅得光復主人公      겨우겨우 광복의 주인공 됐네
4. 韓契始習八九歲      8·9세에 비로소 한글 배우며  
何謂國語晚自醒      뒤늦게야 깨달았네 국어라는 걸  
雖然獨立國路遠      그러나 독립국의 길은 멀어서  
教科書印軍政廳      교과서엔 군정청 도장 찍혔지
5. 南北分斷三八線      38선은 남북을 쪼개어 놓고  
上海臨政急歸還      임시정부 서둘러 돌아왔으나  
信託統治贊反裏      신탁통치 하자말자 싸워가면서  
不和對峙漸相反      화목하지 못하고 맞서나갔네

6. 中蘇庇護金日成  
國聯支援李承晚  
共產分權北朝鮮  
民主建設南大韓
7. 中等入學十三歲  
是月動亂避難行  
困軀勞乏尋廢家  
性命扶持甚多幸
8. 仁高進入志于學  
師弟熱誠教學盡  
回顧當年栗林庭  
至今興感怡心身
9. 却反杳然過去事  
野球優勝舉校歡  
休戰反對示威秋  
遠慕出遊脫鄉關
10. 五十年代低開發  
國民所得百未滿  
三選改憲混濁政  
被援助下民窮寒
- 중국 소련 김일성을 감싸주었고  
유엔은 이승만을 지원하여서  
북쪽에는 공산주의 나라 쪼개고  
남쪽에는 대한민국 건설되었네
- 중학교에 입학한 열세살적에  
그달에 동난 터져 피난갔다가  
지친 몸에 혈린 집에 찾아와서는  
목숨만은 부지한 것 고마워했지
- 열다섯에 인고에 입학하여서  
스승힘써 가르치고 제자 배우니  
그 시절 울림교정 되돌아 보면  
지금껏 감동으로 마음 흥겹네
- 다시문득 그때를 생각해보니  
야구부 전국 우승 기뻐하기도  
휴전반대 데모한 가을도 있고  
드디어는 뜻을 세워 고향떠났네
- 50년대 우리는 개발도 못해  
국민소득 100불도 되지 않았고  
자유당의 삼선개헌 혼탁한 정치  
남의 나라 원조받는 가난한 백성

萬海漢詩 三首

聲疑情頓釋 仍得一詩

男兒到處是故鄉  
幾人長在客愁中  
一聲喝破三千界  
雪裡桃花徧徧紅

사나이 가는 곳은 어디나 故鄉  
긴 세월 客愁中에 사는 사람들  
한마디로 소리쳐 흔들린 宇宙  
눈속의 붉사꽃이 붉기만 하다.

次映湖和尚 香續寺

萬木森涼孤月明  
碧雲層雪夜生眞  
十萬珠玉收不得  
不知是鬼是丹青

수풀 험 험 인색한데 밝은달 하나  
푸른 구름 쌓인눈 뒤응개로 밤  
거둔것 아이없는 빛나는 구슬  
귀신인지 달형인지 눈앞 무서다

自京歸五歲庵贈朴漢承

一天明月君何在  
滿地丹楓我独來  
明月丹楓共相忘  
唯有我心共徘徊

하늘엔 달 밝은데 어디 계시오  
문세상 단풍속의 나 홀로 왔오  
달과 단풍 위로간이 잊어버리고  
내 마음만 지니고 헤메다니오.

十牛圖頌

十玄談註解

十의 波默

- 1 尋牛 心印 (마음의 踏)
- 2 見跡 祖意 (祖師의 意)
- 3 見牛 玄機 (玄玄한 기를)
- 4 得牛 塵異 (의 塵은 何하?)
- 5 牧牛 演故 (가르침을 演)
- 6 騎牛歸家 達本 (根本에 達할)
- 7 忘牛存人 破還鄉 (還鄉을 打破함)
- 8 人牛俱忘 轉位 (位가 轉하심)
- 9 返本還元 廻機 (기를 轉하심)
- 10 入廐垂手 一色 (한 色)

十牛圖: 中國의 廐庵 志遠의 創說, 或 清居의 說.

十玄談: 中國 廐州 安樂의 志은 佛頌.

入廐垂手: 禪宗의 悟道의 相致, 六度의 菩提(기)에 隨가 自由를 利他行을 行할.

金社變 (1884~1928)

1923年(40歲) 12月 東京日王宮前二重橋に 爆彈投擲

舟中

萬里飄然一粟身  
 舟中皆敵有誰親  
 張推荆劍胸藏久  
 魯海屈湘思入頻  
 今日腐心潛水客  
 昔年卧薪嘗膽人  
 此行已決平生志  
 不向關門更問津

안리길 철철떠난 짐살같은 이한몸  
 배안은 모두倭敵 누구라 친할건가  
 張良무치 荆軻칼 가슴에 오래 품고  
 魯東海 屈[湘水]로 생각이 잦았노라  
 오늘은 切齒腐心 물이 담긴 나그네요  
 지난날은 卧薪嘗膽 쓴개같은 사람이니  
 이번길 決行함은 한 평생의 뜻이라  
 關門을 안간다면 나뉘러를 돈물으리.

\*秦始皇은 죽이러 張良의 허물치를 荆軻는 칼을 품고 가렸음  
 魯仲連은 東海로, 屈原은 湘水에 빠려 죽음

新年

一夢人間四十翁  
 松門雨過大和風  
 可憐今日迎新感  
 畢竟千差萬不同

꿈 같은 세상살이 아흔살 노인  
 송문에 비리나니 화창한 바람  
 가련타 새해맞은 오늘 이느낌  
 이차리 千差萬別 인생인 것을.

丹青無題詩

我談聞時君談言  
欲將正誤譚真  
人生落地元來誤  
善惡終當作聖人

내가 잘못 들었음때 그대 잘못 방책  
잘못을 고치려니 무엇이 진실인지  
인생이란 방패부터 원수가 잘못인걸  
잘못인것 바로잡아 아낌내 聖人 되기